

## Appendix 1: images from *Special Operation*

그림책

글 및 그림

최혁

# 독수장전

조선출판물교류협회

주체90(2001)



**김우석 ↑**

《두견새》의 대호를 가진 특수공작원  
《코브라》특공대교관. 대위.  
료숙하고 대담한 우리의 주인공.



**정아 →**

청춘의 사랑과 인간의  
존엄마저 왜놈에게  
무참히 짓밟혔지만  
민족의 일만은 간직한 여인.  
악마의 소굴 나가야마  
성새에서 끝내...

**← 차현철**

당돌하고 배짱있는  
재간둥이 정찰병.  
《두견새》를 찾아  
야수가 우글거리는  
장글속에 뛰어드는데...



**한성필 ↑**

일명 피터 한. 《지투》권라  
장교. 미륙군 소좌.  
상전에 따라 이름도 바꾼  
민족반역자. 결국...



**← 글로리아**

특공대장 스펀버그 대좌의 딸.  
《후버연구소》직원이라는 가면속에  
엄청난 야심이 꿈틀거리는데...



**노덴포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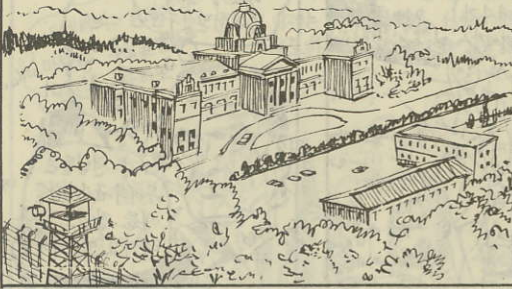
방첩장교. 소좌.  
악명높은 《개논》기관의 고급  
탐정답게 교활하고 응흥하게  
활약하지만...



**← 나가야마.** 일본 정황계의 거물. 니찌렌교 승려.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킬 야망에 미쳐 날뛰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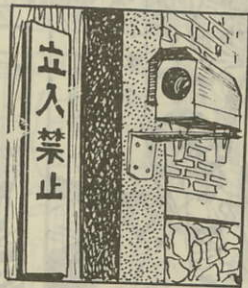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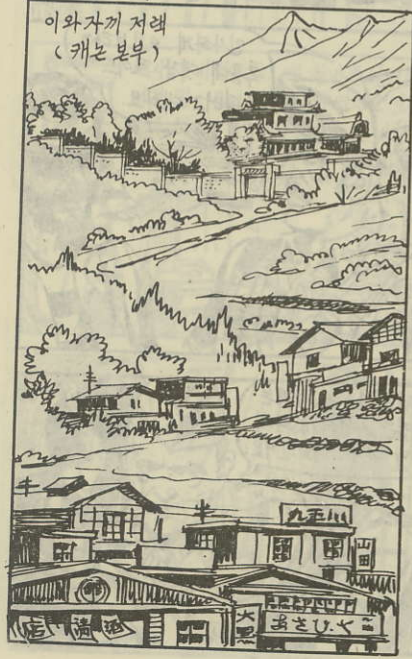
도쿄 미국동군 사령부



골프장









캐논 증좌



벌써 일과가 시작 되었구만.



자네에게 일거리가 생겼네. 이번 일은 아마 마음에 들거네.



인사하게. <코브라> 특공대 대장 로이드 스피버그 대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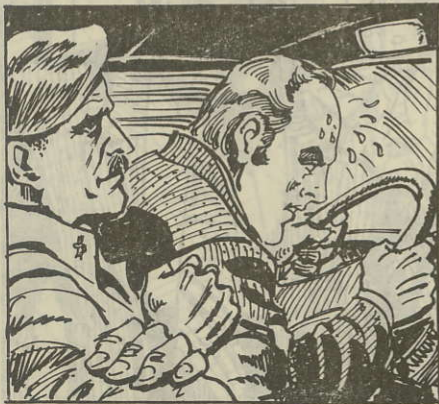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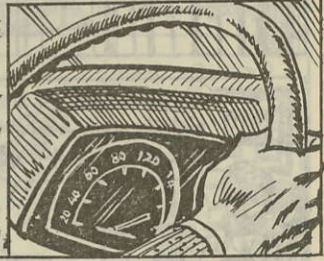


이제 얼마후면 우리는 운명을 시험하게 되네 아마 마지막 기회일거요













대좌중지, 약속합니다. 만경대에  
함께 갈 그날을 위해, 좌를 위해  
명령은 꼭 수행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겠소.  
꼭 돌아와야 하오



동무들의 임무는 «새매»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이요. «새매»가 가면 약속된  
정소에서 «두전세»의 무선수와 접선하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새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두전세»와  
연락선을 파견한다. 대오는 «새매»의  
B-7호지점에서 정선을 조일것.  
«철보산»



이  
국  
대  
사  
관  
임  
분  
주  
재

씨, 아이. 에이대포 도넬리.

군부의 강경파들은 저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소.  
그들은 이 전쟁이 다비드와 골리앗의 싸움이라는걸  
리해하지 못하고요. 미국은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적수에게  
둘러 거대한 공황처럼 폭어가고 있소.



그어떤 묘술도 이젠 소용없소.  
군부의 버처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독사의 이빨»이란 것도 고슴도치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격이요.

수처스런지만 미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소.

내 발뚨를 알겠소?  
«디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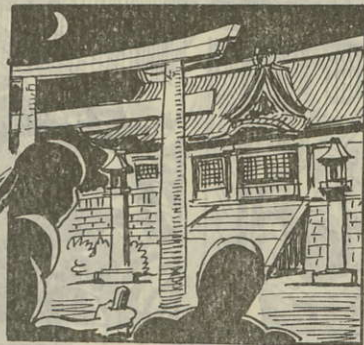
알겠습니다.

그 전쟁은 씨.아이.에이가 주도할것이요.  
때문에 미지광이 군부의 손에서 «독사의  
이빨»을 빼앗아야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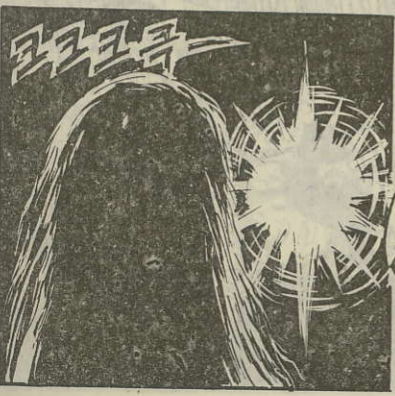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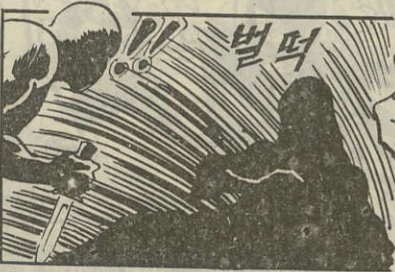
아마 북조선의 정령도  
가만있지 않을거요.  
그러니 선손을 씨서 일방인들이  
보물을 우리 손에 넣어야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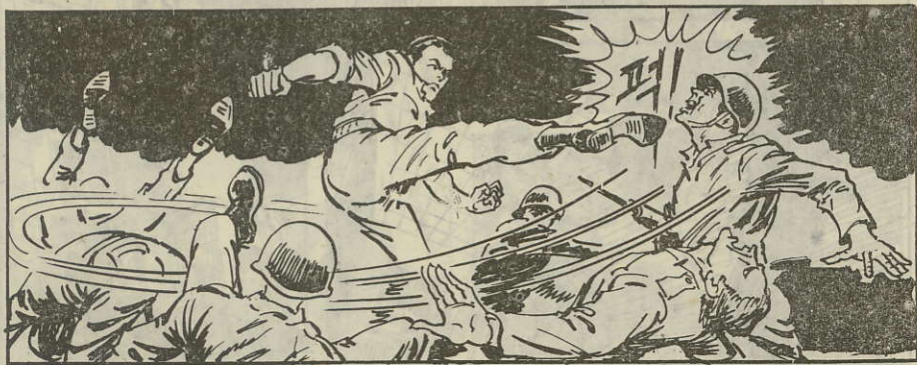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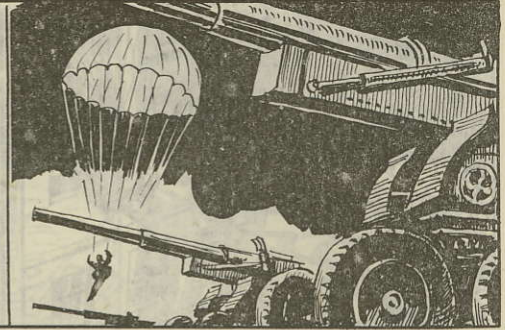
나카야마 성서



















여기 읽어보오  
아마 로문의 좋은  
설레가 될거요.



«여기에 험프리 와일러가 누워있다.  
그는 가진것 하나없이 여기 낯선  
골짜기에 영원히 잠들었다»



«이 방탄조끼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였다. 누구나 방탄복을  
입으라!»



강상이  
어떻소?

비극이예요!  
전력의 희생물!



정말 가없는 인생이군요. 무엇  
때문에 이런 전쟁이 필요할가요?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이 동방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는것이 리허되지  
않아요. 제가 발표하려는 문명의  
초점은 바로 그 인간성리예요.

인간이란 원래  
그런거요. «인간은  
공모를 사랑한다»고  
심리학자인 블레이크  
말했소.



전쟁은 정치나 외교가 수십년동안 하지못할것을  
한 순간에 해결할수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소.  
그래서 모든 전력자들이 거기에 매달리는거요.

하지만 저불쌍한  
병사들이야 전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글로리아! 당신은 저 사람과  
여기에 남으! 아마 민간인은  
다치지 않을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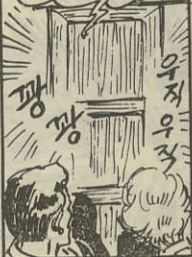
싫어요!  
난 두서  
워요.



장교님!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띄어내리면 공산군도 띄어내릴  
겁니다.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셈이지요.



빨리 그놈을  
찾아야겠소.



개자서! 그럼  
어찌라는거야?

띄어내리지 말고 차장으로 해서  
펼자밀에 붙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게 끝장입니다.  
옷은 벗고 트렁크는 두고... 어서!  
여기는 내가 맡을테니 빨리!















미... 미안하오. 미쳐 위... 워런 신호를 할수 없었소. 놈들이 전파를 강제로 끊고 양호를 해두었던간소.







개놈들!  
안되다!







결국 공산정찰을 일망  
박진했다는거겠소?

?...  
?



대위! 난 법의감정원이  
아니요. 내겐 시체가  
필요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숨이붙어  
있는자를 하나라도  
잡으려고 최선을...



됐소, 됐소! 당신에게 표창을  
내신하겠소.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 권한으로 이틀간 휴가를 선포하오.

감사  
합니다.



정말 그 세명이 전부이겠는가. 어쩌서 그들이  
무모한 자살공격을 시도했는가. 임무를 수행하지못한  
화플인가. 아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다!



그럼 아저다 전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들의 영웅적  
최후를 알리기 위한 개기는 아닐것이다. 그렇다! 그자들은  
더큰 목적을 위해 생명을 내던져 그 전파를 날렸을것이다.



누군가가 아직 살아있다.  
《코브라》 특공대에  
침투된 미지의 인물과  
만날 점선자는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그가 누구이겠는가.



저 인물은 요긴한 장소에 나타나곤 한다.  
우연인가? ... 아니 우연이란 있을수 없다.  
그것은 필연의 산물이다. 희원에 인상적인  
기미가 있는 애젊은 사나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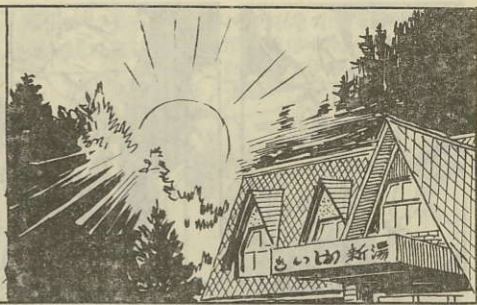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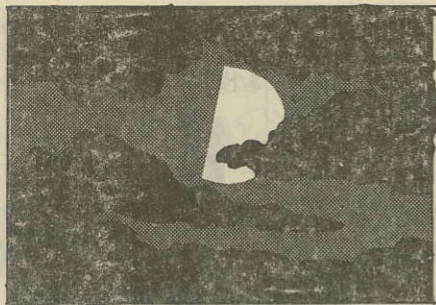
영사기를 다시 한번  
틀리시오!











음? 벌써  
날이 밝았군.



난 당신을 좋아해요.  
사나이들이란 책략과  
모략의 가지위에 등지를  
틀고사는 동물이예요.

하



그렇게 성별해야  
않지않소. 우리  
서로 리해의 알지가  
이루어 졌다고생  
각하는데...



흔들어  
요술무대...  
감시를할  
해야지



영?! 신문에서  
술병이?  
신기한데...



아하—  
거기에서 조화가  
생기는 거만.



고약한  
친구였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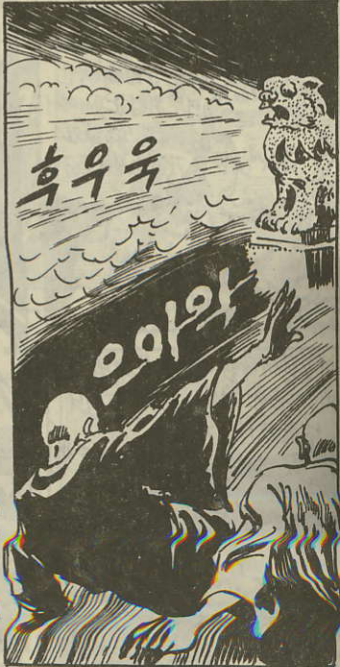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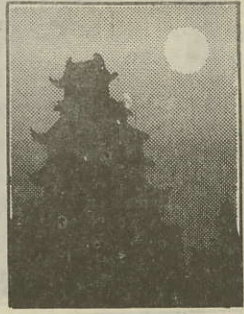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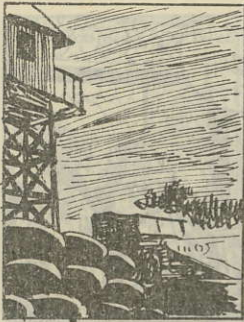












대화반, 피터소파를 어떻게 할가요?

나에겐 지옥에서  
건져낸 시라소리가  
필요 없소!

영?! 네가 어떻게...



아버지, 피터씨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아따 동양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썬라피랑 앞에 가 있을게다. 네가 그따위 썬들 인종과 결혼하지 않게 다함이지.



지금부터는 너한테 약혼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진 나에게 또 자유를 선사 하는군요.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한때의 점을 생각해서라도-



살짝



흥! 제 짐들이란 모를 것들이야...

그럼 일흔병으로 강쇠시 켜 전선에 보내자꾸나.







